

<2013.12.02.~2013.12.04.>

전 북 일 보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창갯벌 등 탐방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 및 학교 관계자, 동대학원 도시환경 최고위과정(회장 강완수) 수강생 등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자들은 고창웰파크시티와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공원에 대한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고창읍성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고창갯벌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을 탐방했다.

강완수 회장은 “찬란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유네스코에서 왜 고창 지역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알겠다”며 “각계각층에서 핵심리더로 활동 중인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생 모두가 고창군을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 모델로 삼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완기 회장은 제30기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수강생들의 마음을 담아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고창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명불허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창군 방문
도시환경발전 핵심모델 삼을것

서울대학교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 및 학교 관계자와 동대학원에서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을 밟고 있는 강완수 회장 등 제30기 수강생들이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자들은 고창웰파크시티와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공원에 대한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고창읍성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및 고창갯벌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을 탐방하면서 고창의 매력에 푹 빠졌다.

강완수 회장은 "찬란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유네스코에서 왜 고창 지역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알겠다. 정말 자랑스럽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핵심리더로 활동 중인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생 모두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제30기 수강생들은 30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을 방문했다.

고창군을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모델로 삼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은 "고창군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고창군의 자연생태 환경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군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명품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홍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완기 회장은 제30기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수강생들의 마음을 담아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고창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고창=김준원기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창의 매력에 '푹'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호평'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 및 학교 관계자와 동대학원에서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을 밟고 있는 강완수 회장 등 제30기 수강생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발생한 도시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날 방문자들은 고창웰파크시티와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공원에 대한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고창읍성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및 고창갯벌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의 핵심지역을 탐방하면서 고창의 매력에 푹 빠졌다.

강완수 회장은 "찬란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유네스코에서 왜 고창 지역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알겠다. 정말 자랑스럽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핵심리더로 활동 중인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생 모두가 고창군을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모델로 삼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은 "고창군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고창군의 자연생태 환경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군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명품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홍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완기 회장은 제30기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수강생들의 마음을 담아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고창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고창=임동갑기자

새만금일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매력에 퐁당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환경 최고위과정 수강생 자연생태 문화 탐방

최근 서울대학교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 및 학교 관계자와 동대학원에서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을 밟고 있는 강완수 회장 등 제30기 수강생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발생한 도시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방문자들은 고창웰파크시티와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공원에 대한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고창읍성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및 고창갯벌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

역의 핵심지역을 탐방하면서 고창의 매력에 퐁 빠져들었다.

강완수 회장은 "찬란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유네스코에서 왜 고창 지역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알겠다. 정말 자랑스럽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핵심리더로 활동 중인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생 모두가 고창군을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모델로 삼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은 "고창군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고창군의 자연생태 환경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군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명품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홍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완기 회장은 제30기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수강생들의 마음을 담아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고창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전 라 매 일

서울대 도시환경 최고위 30기

고창 자연생태 문화 탐방 실시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 및 학교 관계자와 동대학원에서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을 밟고 있는 강완수 회장 등 제30기 수강생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발생한 도시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날 방문자들은 고창웰파크시티와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공원에 대한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고창읍성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및 고창갯벌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을 탐방하면서 고창의 매력에 푹 빠졌다.

강완수 회장은 “찬란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유네스코에서 왜 고창 지역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알겠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현재 각계 각층에서 핵심리더로 활동 중인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생 모두가 고창군을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모델로 삼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은 “고창군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고창군의 자연생태 환경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병훈 기자



고창 자연생태문화 탐방 줄이어

(고창=뉴스1) 박재철 기자 입력: 2013.12.02 14:26:25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을 방문했다./사진제공=고창군© News1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 관련 각계 각층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 및 학교 관계자와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을 밟고 있는 강완수 회장 등 제30기 수강생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자들은 고창웰파크시티와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공원에 대한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고창읍성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및 고창갯벌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 지역을 탐방했다.

강완수 회장은 "찬란한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유네스코에서 왜 고창 지역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알겠다"며 "최고위과정 30기생 모두가 고창군을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모델로 삼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9~28일 까지 국내 여행 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총5회에 걸쳐 고인돌 유적지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운곡습지를 둘러보며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확인했다.

한국여행작가협회 유정열 총무이사는 "운곡습지가 고창의 시크릿가든으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며 "고창군이 생태도시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완기 회장은 제30기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수강생들의 마음을 담아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고창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생태환경자원 '생태관광명소'로 개발 필요

기사등록 일시 : [2013-12-03 15:50:50]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배우면서 환경을 새롭게 인식하는 '생태관광(Eco-Tourism)'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국가적·지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고창 갯벌과 부안 줄포만 갯벌, 고창 운곡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지 지정 등으로 전북 생태환경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수한 생태관광자원들에 대한 보전과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로 생태관광명소로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에서는 생태관광 국가전략으로 1996년 세계 최초로 '국가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The National Ecotourism Program : NEAP)'를 완성했고 일본은 생태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2007년 '생태관광추진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정제'를 추진해 시범사업지구 5개소를 선정하는 등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10년부터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www.mustgo100.go.kr)'을 선정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전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생태자원은 234개, 생태자원을 활용해 추진 중인 사업은 126개, 이들과 연계가능한 관광자원은 271개로 이들 중에서 생태관광자원으로 잠재적 가치와 활용가능성이 높은 곳이 22개소로 나타났다.

먼저 생태가치를 보유한 자원은 고창해안사구지역, 줄포만생태공원, 천호동굴, 대아수

목원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일원, 신천습지, 뜯봉샘일원, 금강하구철새도래지, 월영습지 등이다.

경관가치를 보유한 자원은 군산저수지, 만경능제와 하소백련지 일원, 완주 화암사, 부안 마실길, 건지산과 오송제 일원, 장안산 억새밭, 금강옛길, 구담마을과 장군목 일원, 삼산마을과 행정리 마을숲, 죽도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동진강갈대습지와 전주천상류유역은 생태와 경관가치 모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국 박사는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생태환경보전 및 관광지 개발전략과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관광 자원화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생태해설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 생태환경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면 보전계획으로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 생태관광자원을 환경부 '생태관광지정제'에 의한 생태관광지로 지정, 생태관광지로 지정받아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생태환경자원의 적절한 보전과 개발을 위해 한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우수한 생태환경자원을 생태관광명소로 개발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NGO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와 정읍시는 정읍 월영습지에 대한 환경부 조사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 생태환경자원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북도 생태관광명소로 보전·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u0014@newsis.com